

# 불온과 순수 사이, 여성 사회문화사에 대한 문학적 탐사

—김재용·이상경,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  
소명출판, 2022.

임옥규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목차

- 1 북한의 여성문학 (불)가능한 함의
- 2 해방과 억압의 이중성 파헤친 여성작가 발굴과 북한 여성문학  
형성 원리 규명
- 3 국가재난 속에서의 역전과 전복의 인식 전환, 새로움의 시선 포착
- 4 여성문학의 전망 제시

## 1 북한의 여성문학 (불)가능한 함의

사실, 북한 체제에서 여성문학이라는 용어는 어불성설에 해당된다. 여성문학을 “여성의 억압 및 예속 상태를 인식하고 여성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문학”이라는 일반적인 전제에서 본다면 말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에서의 여성 억압과 예속은 없다. 북한에서 모든 여성문제는 해방 직후 「남녀평등권」이 제정된 이래 해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1</sup> 북한문학에서의 여성 형상화도 공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여성상이 독려된다.

현재 수많은 담론 영역에서 북한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위치는 젠더, 국가, 민족의 경계를 그려내는 기획 속에서 정해진다<sup>2</sup> 논의처럼 북한 여성의 문제는 통치 담론과의 영향관계에서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 이면에 숨겨 있는 여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여성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공식적 언술 이면에 숨겨져 있는 비공식적 목소리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문제제기한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은 북한 여성문학의 불가능하면서도 가능한 함의를 추적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북한의 여성문학은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포착할까, 북한 여성작가가 주목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무엇이며 여성 노동자들의 재현은 어떠한 역사를 가질까 하는 여러 의문에 대해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은 북한문학장에서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탐구하면서 그 해답을 들려준다.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은 북한 정책과 문예이론이 표방하는 실제와는 다르게 텍스트에서 발생하는 다성성의 목소리를 포착하고 더 나아가 그 다양성과 가치를 모색한다.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의 여성문학사를 조명하고 여성문학이 나아갈 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

1 김계용·이상경,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 소명출판, 2022, 7쪽.

2 나라 유발 데이비스, 박혜란 역, 『젠더와 민족』, 그린비, 2012.

## 2 해방과 억압의 이중성 파헤친 여성작가 발굴과 북한 여성문학 형성 원리 규명

남한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접하기 힘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 작가를 특정하기 힘든 여러 상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잡지와 단행본에서 여성 작가와 여성중심 텍스트를 전수조사하면서 꼼꼼하게 선별하고 배열한다. 더 큰 특이점은 그간 북한 문학사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여성 작가와 여성중심 텍스트들을 발굴하여 사회문화사적 맥락을 포함하는 북한 여성문학사의 가능성을 타진한 점이다.

북한 문학사에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 방법론을 새롭게 규정한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학사는 통시적이고 공시적이며 총체적인 문학의 역사를 바라본다. 문학사에는 문학 상황의 선택과 배열, 문학 연구의 시각과 가치 평가의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난다. 이 책은 여성문학이라는 특정한 관점에 입각하여 서술의 논리와 방법을 구축하고 ‘정전’의 계보를 형성하고자 한다. 북한 여성중심 텍스트에 대한 정전화 과정에서는 저자들의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논리적이고 정교한 시각이 조화를 이룬다.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은 한반도 이북의 특수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북한 여성 작가의 시각을 통해 드러낸다. 북한의 여성 작가들이 체제를 수호하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성이 처한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드러내는 양상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펼친다. 이 책에서는 북한에서 여성문학이라고 표방한 것이 없기에 이를 여성이 창작주체로서 쓴 문학 또는 여성 작가가 여성주의 시각을 담은 문학으로 지정한다. 특히 해방과 억압이라는 여성 삶의 이중 구조를 다성적으로 발화한 소설에 주목하고 집단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자신의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한 여성작가를 다룬다.

이 책은 북한 여성 작가에 영향을 끼친 외재적 요인으로 해방 이후, 고난의 행군 이후를 제시하고 구분하면서 각각 4명의 작가들을 선별한다. 이외에도 각론에서는 여성주의 시각을 다루는 다양한 작가들과 작품들을 다룬다. 북한 여성문학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임순득 작가가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상관관계를 다루면서 제도와 의식의 괴리를 예리하게 파헤친 점을 「솔밭집」(1947), 「우정」

(1949), 「여작업반원들」(1956),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1957) 등에서 제시한다. 천리마 시기 여성 노동문제를 다룬 리정숙 작가에 대해서는 종속과 독립의 길에서 성장하는 여성의 모습이 「선희」(1957), 「진실」(1959), 『산새들』(1961-1962)에 형상화되어 있음을 밝힌다. 북한의 주류인 주체문학시기에 활동한 강복례 작가가 여성의 다면성을 잘 포착하고 있음을 「수연이」(1978), 「직장장의 하루」(1992), 『다시 전선에서』(1989)를 통해 제시한다. 최상순 작가의 경우에는 『느티나무』(1991)에 나타난 국가사회주의의 농촌문제를 다루면서 집단과 개인의 욕망 사이의 갈등이 제시되었음을 간파한다.

북한 사회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연이은 재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기존의 공식적인 것, 남성적인 것들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본격적인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등장한다.<sup>3</sup> 이 책은 북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경향을 보인 작가로 한정아, 김혜영, 리라순, 김자경 등을 제시한다.

### 3 국가재난 속에서의 역전과 전복의 인식 전환, 새로움의 시선 포착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은 공적 이데올로기에서 일컫는 혁명과 달리 문학에서 여성성의 표출로 나아가는 새로운 경향으로서의 혁명을 고찰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남성평론가가 집단적 현상으로 특기할 정도로 그 양적 팽창이 눈부셨던 흐름을<sup>4</sup> 이 책에서는 여성해방 입장의 ‘임순례, 리정숙, 강복례, 최상순’에서 젠더적 관점의 ‘한정아, 김혜영, 리라순, 김자경’의 변화로 파악한다. 연이은 국가재난 앞에서 주체사상이나 선군이념으로 지칭되는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보편적 삶의 양상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표출한 일련의 여성작가들의 등장은 북한문단에 혁명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 시기 북한 여성 작가들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사적인 욕망을 갈망하고, 몸의 고

3 이상경, 「북한 여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 1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379쪽.

4 김재용·이상경, 앞의 책, 287쪽.

통과 환희를 경험하는 여성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북한의 여성상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의 역할을 하는 혁신적 노동자, 혁명적 어머니<sup>5</sup>로 일컬어지지만 이 책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상투성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여성작가의 작품 속 여성성에 주목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여성들의 열정과 열망은 당당함을 넘어서 기존의 남성 우위의 질서를 전복시켜 여성들의 평등을 이야기한다고 본다.<sup>6</sup>

여성 과학자 삼대를 다룬 한정아의 『녀학자의 고백』(2013)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시대의 사회주의 분배원칙과 사회적 정의의 경계를 다루면서 긍정적인 여성과학자에 비해 무기력하고 타락한 남성과학자를 비교한다. 분배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윤리적 쟁점들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 책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 시대의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문제점을 한정아 작품을 통해 흥미롭게 제기한다. 이에 따르면 습관적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새로운 형태의 평균주의를 유발하는데 이는 북한체제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의 문제가 과연 정의로울 수 있는가를 한정아 작가는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 문제로 제기한다. 이 책에서는 사회주의 분배법칙은 노력만큼 얻는 것인데 작은 노력으로 큰 것을 가지려 하는 남성과학자들의 이기주의적 욕심과 타락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다룬 작가의식을 높이 평가한다.

여성의식을 보여주는 김혜영의 『인생의 열매』(2010)에 대해서는 여성성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젠더 문제만이 아니라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서도 논한다. 우선적으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농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대용연료와 대용비료 문제를 다루는 작가의 시각이 그 원인으로 사회주의 시장의 상실과 이에 우선하는 미국의 경제 봉쇄와 제재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여기에 강하고 당당한 여성들을 등장시킨 작가의 젠더의식과 과부와 홀아비의 결합문제에 관심을 갖는 섹슈얼리티 문제도 강조한다.

리라순의 「행복의 무게」(2001)를 통해서도 고난의 행군 이후에 사회 진출

---

5 박영자, 「북한의 여성정치: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제13권 1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362쪽.

6 김재용·이상경, 앞의 책, 125쪽.

하는 여성들의 이중의 짐이 되어버린 현황을 분석하는데 과학적 진보라는 시대적 짐과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여성과학자의 내면의 갈등을 포착한다. 리라순의 『사랑하시라』(2009, 2017 증보판)에 대해서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육체적 고통의 문제를 파악하는 작가의 관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평양산원 병원의 현대화 과정을 통해 복강경 수술을 둘러싼 관료주의의 폐해와 체외수정 문제를 통해 모성보호 차원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겪는 여성 몸의 문제를 다룬 점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 책은 김자경의 「사랑의 샘줄기」(2002)와 「사랑의 향기」(2007)에서 작가가 여성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함께 의식하는 문제의식에 주목한다. 이 작가의 「류선화」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와 가정 역할에 대한 젠더적 전복을 다루고 「사랑의 샘줄기」에서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자기주장이 확실한 여성이 등장하는 점과 ‘불륜’을 묘사하여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존재함을 제시한다. 『사랑을 다 바쳐』(2017)에 대해서는 이 작가가 정보산업시대를 이끌어 가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그리면서도 옛 애인을 만난 여성의 심리를 강렬하게 묘사한 점을 주목한다. 여기에서는 ‘나의 것’과 ‘우리의 것’을 논하면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취급하는 작가의 방식에서 북한문학의 새로움을 발견한다.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은 국가재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여성이 등장하면서 ‘여성성’의 발화와 주체적인 자기표현이 강화되는 상황을 텍스트 이면에서 읽어냄으로 국가재난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대응관계를 새로움의 시선으로 전환시킨다.

#### 4 여성문학의 전망 제시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은 저자들의 예리한 시각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으로 여성 작가의 지향성을 시대별로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독자로 하여금 여성문학뿐 아니라 북한문학에 대한 새로움과 흥미를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북한에서의 여성작가의 등단과 남성중심의 북한문학사에 여성문학이라는 문학장이 형성,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문학사에서 누락되고 평가 절하되었던 여성작가와 작품들을 강력하게 소환한

다는 점이다. 목차 상으로는 대표적인 작가 8명의 작품을 유형화했지만 1·2부의 머리말에 해당되는 각각의 제1장에서는 동시대 대표적인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들을 소환하여 북한 여성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개관한다.

북한문학을 바라볼 때 문학적 보편성과 사회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평등기획에서 돌출하는 체제의 빈 공간에 대한 시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여성문학에서의 불온성은 단일 지배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에 대한 빈틈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치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강요되는 사회에서 여성적 글쓰기는 문학적인 것의 불온성,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 제기뿐 아니라 시대적 위기에 대한 비판의식을 겸비한다.

이 책에서는 북한 여성작가가 제기한 여성 과학자의 헌신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북한 체제에서는 이기주의와 반사회주의적 행동으로 치부되지만<sup>7</sup>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내는 지점을 지적한다. 또한 북한 사회의 어려움을 여성에 기대는 경우로 영예군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의 희생을 제기하거나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의 핵심을 읽어낸 작가의 시선에 주목하고 새로운 첨단과학기술 도입에 저항하는 남성들을 비판하는 여성작가의 의식도 분석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여성문학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황을 사회문화사적 입장에서 규명한다. 문예이론이나 담론이 아닌 실증적 층위에서 여성문학을 논하고 하나의 흐름으로 포착하여 남성중심 문학의 빈틈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북한 여성문학의 존립 근거와 형성 원리를 총체적인 시각을 통해 분석적으로 제기하는데 이는 남북한 여성문학의 미래를 밝히는 것으로 남북한 통합문학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북한 여성 작가들의 활약도 기대하게 되는데 이는 책에서 밝힌 대로 새로운 세대의 여성 작가들의 시도가 이데올로기의 침전물이 아닌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결합 양상, 에코페미니즘의 구현, 젠더적 감수성 표출 등으로 다양화될 가능성이 제시하기 때문이다.

북한 문학은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여성문학은 북한의 지배

---

7 위의 책, 132쪽.

적인 논리나 조건의 변화를 포착하는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북한문학은 지배담론에 침윤되어 획일화되어 있고 경직된 문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시각은 일정 부분 타당성을 지니나 전체적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북한 문예학에 대한 방법론을 제기하고 내재적 연구에 탈냉전 시각을 제시한 거장들의 혜안이 모여진 연구서로 이전의 북한 여성문학 연구에 큰 진전을 보인다. 이 연구서는 장차 남북 문학장에서 남한 여성문학과의 조응을 통해 남북한의 특수성과 상대성, 개별성, 다양성, 연속성이 다원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소중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